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2차전지 (OVERWEIGHT)

시대59 – 알버말의 리튬 시장 전망과 선물 가격 반등

- 리튬 공급이 수요 증가를 못 따라간다고 보는 리튬 시장 1위 알버말
- 8월 들어 반등에 성공한 리튬 선물 가격
- 성수기 리튬 재고 확보 가능성까지 겹치면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반등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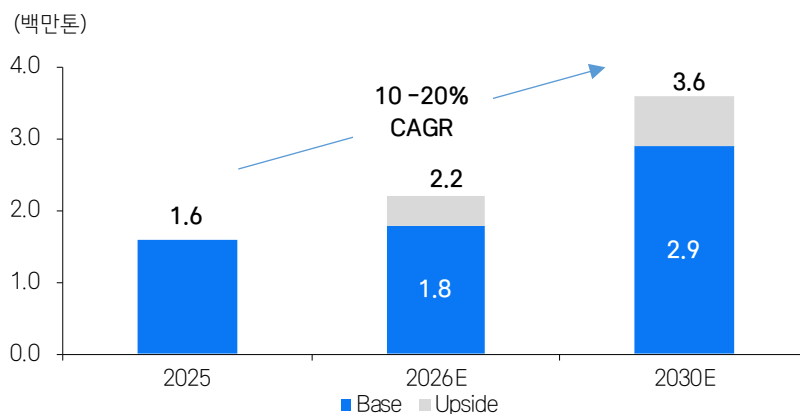
WHAT'S THE STORY?

들어가는 글: 시대(시장과의 대화) 신 아홉 번째 주제는 리튬 가격이 5월 고점 이후 조정을 보이는 상황에서 글로벌 리튬 생산 1위 업체인 알버말의 최근 실적 발표 자리에서 언급한 리튬 시장에 대한 전망 내용을 다뤄봅니다. 글로벌 배터리업체들이 ESS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2차전지 밸류체인 내 가장 앞단에 위치한 업체는 전방 전기차와 ESS 수요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에 따른 그들의 리튬 가격 전망에 대한 입장과 리튬 선물 가격의 최근 동향을 참고하면 3개월 가까이 지속된 가격 조정 이후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 리튬 생산 1위 알버말이 보는 타이트한 리튬 수급 전망: 알버말은 지난주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을 통해 리튬 수요 증가율이 공급 증가율을 계속 앞지르고 있다고 지적함. 2026년 리튬 수요는 ESS 수요 강세로 인해 전년 대비 45% 증가한 220만 톤까지 예상하는 데 비해 신규 공급 프로젝트 진척이 더딘 상황. 이로 인해 시장 내 탄산리튬 재고는 3주 미만에 불과하고 자체 재고도 매출액 대비 19%로 평년 수준인 25%를 하회하고 있다고 평가.

(다음 페이지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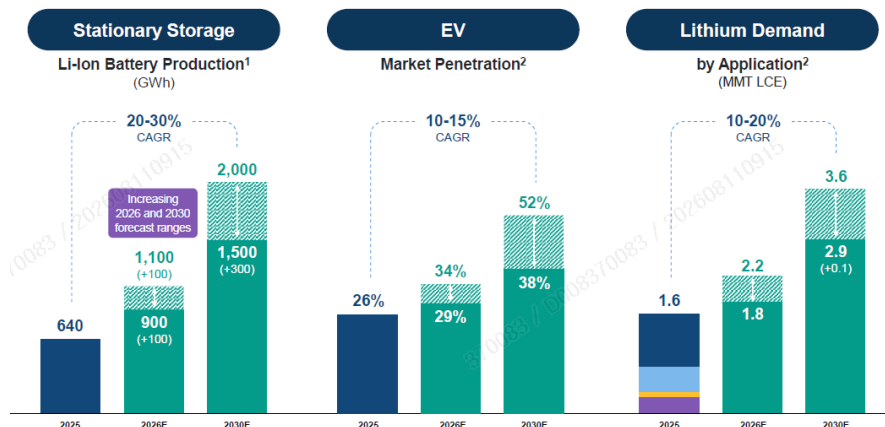
알버말: 글로벌 리튬* 수요 전망



참고: *탄산리튬 기준
자료: 알버말

글로벌 리튬이온 기반 ESS 배터리 생산 전망치 상향: 리튬 수요 전망치 상향의 근거로 알버말 경영진은 그리드용 저장장치 수요 성장을 저평가했다고 인정하며, 올해 ESS용 배터리 생산 규모에 대한 전망치¹를 기존 보다 100GWh 높여 최소 900GWh(+41% YoY)에서 최대 1,100GWh(+72% YoY)로 제시. 그리고 2030년 ESS 배터리 생산 전망치도 하단을 300GWh 높여 1,500GWh로 상향 조정.

알버말: 2026년과 2030년 ESS 시장 전망치 상향 조정



참고: *ESS 배터리 출하 데이터는 리튬 기반 배터리

자료: ICC Sino, Lira, 알버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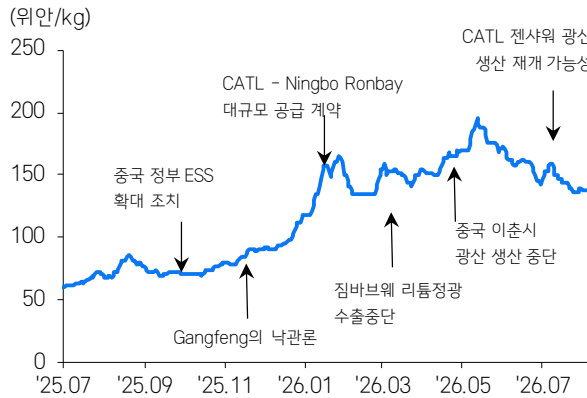
강한 전방 수요에 리튬업체들의 정비 기간에 들어가며 8월 들어 리튬 선물 가격 상승: 7월 한 달 리튬 가격이 3.5% 하락해 연중 고점(5월 12일 kg당 195.5위안) 대비로는 조정 폭이 30%에 이릅니다. 이는 리튬 공급단에서 짐바브웨의 리튬 정광 수출 재개 및 CATL의 젠샤위 리튬 광산 재개 등 장기 공급 과잉 우려에 리튬 트레이딩 시장내 불안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으로 풀이. 하지만 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전방 수요는 여전히 강하고 업계 전반의 재고 수준도 낮은 것으로 파악됨.

SunSirs에 따르면 8월 들어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 상승 전환해 월초 저점인 톤당 13.6만 위안에서 일주일만에 14.8만 위안으로 일주일간 톤당 1만 위안 이상 상승함. 수요는 견조한 반면, 공급 측면에서는 China Minmetals Resources, Tianhua Xienneng, Jiuling Lithium Industry 산하 탄산리튬 생산 라인들이 8~9월 사이에 정비를 위한 가동 중단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급 축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

당사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리튬 가격 조정의 빌미를 제공한 CATL의 젠샤위 리튬 광산의 재가동률은 여전히 낮은 상황인 데다, 5월 가동 중단된 중국 이춘시의 일부 리튬 광산들은 여전히 생산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임. 따라서 하반기 들어 시장에서 우려하는 공급 과잉의 가능성은 낮고, 성수기 들어 수요 확대와 선재고 확보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리튬 공급 부족으로 인해 연중 가격 고점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임.

¹ ESS 배터리에 대한 시장 전망치가 분석 대상과 조사 기관마다 상이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BNEF는 ESS 설치량 전망을 2026년 글로벌 459 GWh로 전망. 알버말은 ICC Sino와 Lira의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 전망치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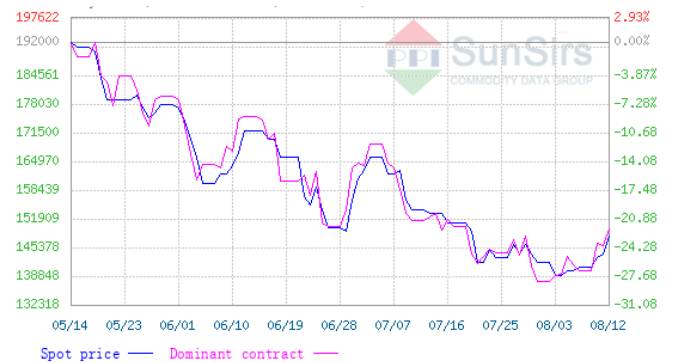
탄산리튬 가격 추이와 주요 이벤트



참고: 기간 2025.7.1 ~ 2026.7.31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8월 들어 탄산리튬 선물 가격 반등



자료: SunSirs

한국 2차전지 산업 시사점 - 리튬 가격이 돌아서면 투자 심리도 돌아설 가능성: 리튬 가격이 5월 중순 고점을 찍은 후 3개월 내리 조정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한국 2차전지 밸류체인도 급격한 주가 조정을 경험한 상황. 이는 밸류체인의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전망이 리튬 가격 약세를 반영하면서 조심스러웠기 때문으로 판단됨. 따라서 시장 1위 알버말이 전망하는 리튬 수급 환경이 맞고 최근 중국 광산 업체들의 가동 상황이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타이트한 수급을 돌려놓을 수준이 안된다면 하반기 중 리튬 가격은 강세 전환의 가능성도 있을 것. 이는 2차전지 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바꿔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임.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